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해명

제랄드 프랭스의 「서사학」

말(기호)이란 전달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 이란 데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인간의 출현 과 함께 나타났을 서사물이 얼마나 광범한 영 역이 걸쳐 있으며 어떠한 수단과 기능으로 활 용되었는가를 상상하는 일은, 따라서 불가능 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로 말미암아 일찍 부터 서사물은 초역사적, 초국가적, 초문화적 산물로 인식되었다.

최근 번역돼 나온 제랄드 프랭스의 「서사 학」(최상규 옮김, 문학과 지성사)은 서사물의 이모저모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책으로 특별 히 주목할 만하다.

사실 서사물이 공기와 같이 일상의 삶과 결부된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 닌 서사학적 지식이란 게 참으로 보잘 것 없 음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무지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 쪽 에 골몰한다는 말이 어울릴 것도 같다. 그렇 다고 해서 그 책이 연구의 종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의 범위나 깊이가 심각해서 그 맥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자 역시 그의 부족한 능력을 실토함으로써 명쾌한 해결의 통로를 위한 과정으로만 만족한다고 밝힌다. 다만 그가 고심하는 것은 서사물로서 갖추고 있는 형식과 기능을 어떻게 골라내 보이고, 그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유효한 도표를 여하히 확보하느냐에 있다.

우선은 서사물의 정의를 마련해야 할 터인 데, “현실 또는 허구의 사건(events)과 상황 (situation)을 하나의 시간연속(a time sequence)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는 정도로 간 략하게 짚어주고 있다.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정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상의 인표와 저자의 자상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연원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소급하면서 서사학의 실체 는 더욱 묘연해지는 느낌이다. 저자라고 예외 는 될 수 없으리라.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보 다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 주제를 함몰시 키지 않으려면 시각을 고정시켜야 되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점검하려는 절제가 요청 된다. 3가지 사항, 예컨대, 서사물의 제방식 을 규정하는 특징, 이런 특징이나 표현을 설 명하는 형식모델, 서사물의 평가와 그 이해의 제조소 등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저자의 관심이 주로 문학에만 한정되기를 거부하고 서사형식 일반에까지 두루 미치는 것을 애초에 지향했으나, 영역을 좁혀 주로 기술서사물(Written Narrative)에만 한정시 킨 일은 칭찬받아 마땅했다.

이책의 의의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설사 있 다 하더라도 서사학이란 낮은 학문분야에 심 대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 끝까지 고군분 투하는 그의 성의에는 경의감을 느낄 것이다.

그는 서사학이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기호체계와 의미행위는 물론, 독자가 해야 하 는 해석까지 지배하는 제원리의 발견이라 말 하고 있다. 그건 곧 인간학과 다름아니다. 반 드시 거창한 슬로건을 믿어서가 아니라, 문학 도라면 한번쯤 들여다 볼만한 세계라 할 수 있다.

김승호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41-208 ·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인간 李箱의 삶과 문학 재조립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李箱, 그가 이국땅 동경 하늘 아래에서 그 토록 쓸쓸하게 만26년 7개월의 삶을 마감지 으며 영면의 길에 들어선지도 어언 50여년, 반세기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문학사를 통 하여 그토록 쉽없이 인구에 회자되어온 작가 도 과히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의식의 세계를 철저히 탐색한 그를 작 가 이전의 생활인으로, 천재 이전의 평범한 인간으로 투시하여 보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된 것도 그때문이라. 시인 吳圭原씨 가 엮어낸 李箱수상록 「날자, 한번만 더 날자 꾸나」(문장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뜨거 운 정열을 갖고 만들어진 결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제까지 발굴된 李箱의 에세이를 외래어, 한자, 맞춤법 표기 정도만 손질을 가 하여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게 전6부로 나누 어 총26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체제로 볼 때 서막에 해당되는 제1부에선 李箱의 생애와 일화, 그리고 연인 들에 대한 이야기 등을 알기쉽게 재조립하여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도하였고, 제2부에서 제6부까지는 시대적인 배열보다 는 주요테마별로 편집되어 있는 특징을 엿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각 에세이마다 적절한 해 설을 빈틈없이 곁들여 내용의 소상한 안내역 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점도 독자를 위하여 주목할 만한 배려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반면 본서의 의도가 인간 李箱의 진솔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비 롯되었다고 할 때 그의 체취가 싱그럽게 배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즉 육필원고, 실록, 사진, 유품 및 혈족이나 문우를 통한 생

생한 스케치 등이 다양하면서 더욱 풍요롭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저버릴 수가 없 다. 그것은 곧 타당성있는 총체적인 안목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간 李箱 탐구예의 초점 을 한결 뚜렷이 하는데 진일보할 수 있는 촉 진제가 되리라고 보여진다.

“등잔심지를 돋우고 불을 켜 다음 비망록 에 첩필로 군침빛 ‘모’를 심어간”(山村餘情에 서) 그의 절절한 가슴을 우리는 뜨겁도록 진 지하게 음미할 수 있는 감상의 장이 어느 날 이라도 한껏 수월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異常을 감득하면서도 천 성적으로 理想을 추구하려 한 李箱의 자화상 을 우리 모두가 소담스레 그려나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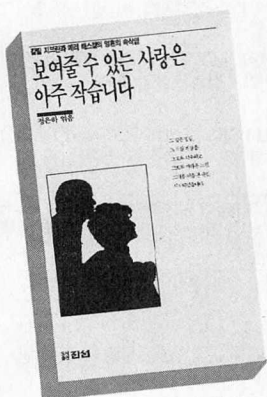
이재섭

서울 중랑구 면목3동 449의 9 · 교사

늘 · 개 · 어 · 있 · 는 · 젊 · 은 · 목 · 소 · 리 · 로

도서 출판 **진선**

702- 2921, 717- 2131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사색하는 사랑을 위하여!

詩人 칼릴 지브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심오한 명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살아있는 언어의 철학자.
지브란과의 사랑을 통해 영혼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메리 헤스켈.
지적인 두 연인의 대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전해준다.

정은하 엮음 값 2,000원



천재들의 학창시절

천재들의 생생한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스타일의 위인전기!

세계의 역사를 이끌었던 여러 천재들이 있다.
아인슈타인, 처어칠, 퀴리부인, 슈베르트.....
그들의 학창시절은 어떠했을까?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이었을까?
천재들의 생생한 학창시절로 함께 떠나보자.

게르하르트 프라우제·이인식 값 2,700원

슬픈 性의 곱씹음과 일깨움

장정일 장편「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성에 관한 문학작품 속의 이야기는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포르노와 예술.

성이 인간에게 있어 본능적 차원으로서뿐만 아니라, 意志的 차원으로 고찰되고부터는 성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생식과 쾌락)는 누구나 인정하게 되었다.

장정일의 첫 장편소설「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열음사, '88)는 작가 자신의 고백처럼 중학교 시절부터 쓰고 싶었던 포르노소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포르노소설이 아니다.

포르노소설이라고 불리어질 때 우리는 흔히 '외설'이라는 관념에 빠져든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런 관념을 싹 건어, 외설과는 거리가 먼 충격적인 성의 풍경을 시·소설·희곡·수필(일기)·시나리오 따위 장르를 넘나들면서 펼쳐보인다. 여기서 '충격적'이란 우리나라에도 번져 있다는(소문으로 들은) 남성 동성연애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낯설음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도...」는 외형적으로 이중구조를 띠고 있다. 한 줄기는, 주인공 김해리가 소년원에서부터 동성연애에 빠져들면서 갖가지 反모랄로 지탄받아 마땅한 성의 편력(물론 해리는 자기 의지로 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과정을 그렸으며, 다른 한 줄기는 글을 쓰는 나(다분히 시인·소설가·극작가로 불리는 작가 자신의 변용된 화자)의 작업(글 쓰는 행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는 우선 이런 이중구조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것이다.

작품 속에 빠져들면, 오늘날 왜곡되고 비틀

린 성의 현장—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있는 곳—에서 늘 곱씹어 왔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 따위를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 좀 어리둥절해진다.

특히 뒤섞인 장르를 좇아 읽다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으며(「고잉 투 캘리포니아」), 또 어떤 곳에서는 꼼꼼한 자료수집(「여원」88년 3월호 인용)의 성실함(?)을 만난다.

장르 해체로 거둔 수 있는 성과라면 다분히 충격을 이완시키는 구실과 낯설음이다. 이 낯설음이야말로 장정일의 시(4권의 시집)와 소설이 보여준 의미구조와 맞닿드릴 수 있는 고리라고 본다.

그 고리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에서 자조적으로 읊조린(29쪽) “더러운 성인들은/내 시를/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마찬가지로/미숙한 정신 또한/내 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당당한 외침을 기억한다면 어떤 단순하고도 소박한 결론이랄까 버리랄까 하는 그루티기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이 작품을 읽는 과정으로서의 곱씹음과 일깨움을 주기 위해 씌어진 것이다. 슬픈 성의 모습을!

심상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8-4 선정빌딩 2층·대교문화

건강하고 튼튼한 삶의詩

김신용 시집 「버려진 사람들」

거칠고 이기심이 많이 뒤섞인 삶의 황폐한 터전에 맨날 우리가 맞부딪치는 바람은 좋지 못한 습관과 얇은 지식의 판단으로 인하여 맑게 되는 기계적인 바람이다. 그런 바람현상에 유독 익숙해진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문화사—그 표피는 웬만해서는 벗겨버리기가 어려울 만큼 두껍기만 하다. 그만큼 몰육화되어버린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삶의 축에 맞추며 기계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도 없는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울컥 울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눈물마저 말라버린 껍질일 뿐이고 마음일 뿐일 것이다. ‘울컥 울고’ 싶음은 바로 최소한의 詩일 터이고, 시시때때로 전형화된 삶의 틀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칠 때 그것은 ‘삶의 진실’이 아닐까 싶어진다. 몰육적인 사랑과 탐욕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몸 하나 벌떡 들고나와 맞서는 자기본능의 생생한 목소리가 「버려진 사람들」(고려원, 88)이다.

시집 「버려진 사람들」 속에는 따뜻하면서도 건강한 삶으로 터득한 얼룩진 사랑의 빛깔이 물씬 배어 있다. 없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현실의 궁핍한 때를 단단하게 극복하고 빈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신선한 징소리 같은 게 울려나고 있다. 「이 땅의 풀잎」 「풍경 1969」 「지렁이의 詩」 「미치지 못해 부르는 노래」 「지계의 詩」 「겨울 함바에서 1」 「잡부 일기」 「청계천詩篇」 등은 비천한 샅일로 어렵사리 꾸려가는 삶임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패배주의적 열등감에 휩쓸리지 않고, 그 뿌리가 삶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라 튼튼한 정거움으로 다가가 열뜨게 만드나. 詩의 표현대로 옮긴다면 ‘온몸 오그런 그대 시린 두발’이라고

적시는 한줌 불꽃’이라고나 부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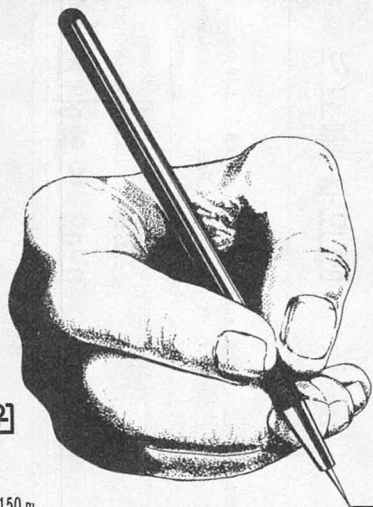
잡풀이나 똥으로 술하게 간주되어오던 없는 사람들의 근성을 이토록 경건한 토대 위에 꽃피우게 한 시인의 자세, 그리고 시가 남기는 감동이야말로 한편 시가 내재하는 현실 속의 뭉을 너끈하게 감당하고 있다. 비록 요즘에 많이 생산되는 유형의 시와는 전혀 상치되는 것임에도, 아름다움이란 으레 한쪽에만 피어 있다는 썩 좋지 않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일격을 때리는 행위라고 해도 감동은 줄어들지 않을 터이다.

孫辰東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1070-3 · 동화작가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편집디자인



- 출판**
 - 단행본 ○전집류 ○잡지
 - 교양도서 ○참고서 ○사전류
 - 교과서
- 신문**
 -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
- 잡지**
 - 교양지 ○전문지 ○종합잡지
 - 정기간행물 ○사보

- 1기생 96% 취업확정
- 2기생은 취업요청 쇄도
- 3기생 모집중(선착순)

● 취업보도실 : 671-8317

미올 편집디자인학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